

지역 소식통

정읍시, '제1회 정읍 웹툰 공모전' 우수작 10점 선정

정읍시가 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참신하고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정읍 웹툰 공모전'에서 총 10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총 37점의 작품이 접수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10점(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이 선정됐다. 시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담아내면서도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를 갖춘 웹툰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받은 '그믐달 찻집'은 현존 유일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백제의 여인과 행상을 나간 남편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상의 공간에서 재회한다는 설정의 웹툰이다. 특히 창의적인 표현과 생화차를 매개로 정읍시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평가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은 시청 홈페이지와 SNS, '정읍소식 21' 책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공무직,노조 노사발전 노사협 개최

고창군이 28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노형수 고창부군수, 최선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고창군 지부장 등이 참여한 '고창군-고창군공무직노조 노사발전 노사협의회'를 개최했다. 고창군과 고창군 공무직노조는 요청한 4개의 안전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상생하는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는 올해 5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중에 있다. 최선례 지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조활동을 통해 조합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앞으로도 항상 여러분과 같이 소통하고 협업하며 노동조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김명식 기자

정읍시, 돌봄 안전망 구축

내년 장애인복지 예산 36억 증액...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중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200명 교통비 지원 등 추진

정읍시가 내년 장애인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 확충에 나선다. 28일 시에 따르면 2024년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은 344억 8600여만원으로 올해 예산 308억 7000여만원 보다 약 36억 원 증액 편성했다. 이는 장애인 기반 시설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에 안정성을 더하고 더욱 촘촘한 장애인복지를 증진해나간다는 시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시는 2450만 원을 들여 전

동보장구 급속충전기 7대(공공기관 6개소, 공공이용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또 864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세 미만 장애아동 중 치료 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은 아동 8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중증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200명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전적 행동(자해·타해)으로 장애 정도가 극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2억 4700만 원)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상응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했다. 더불어 장애인 복지 시설과 단체 기능보강에 4억 2000만 원을 투입한다. 관련해 시는 증액된 내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으로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8일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시의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와 평가, 2024년 신규사업 보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학수 시장(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일상과 이동 편의에 관심을 가져 부족한 점을 확충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정읍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532명 입국

고용농가 준수사항,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교육, 농가일손 해소

정읍시는 인건비 상승과 농촌 노령화로 인한 일손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 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배 이상 확대 유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지난 10월 시는 지역 내 농업인·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138농가에서 540명 고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라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를 추진해 올해(248명)보다 284명 늘어난 532명을 유치했다. 또한 시는 외국 지자체 MOU협약 확대 체결로 필리핀 계절 근로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유치를 위해 지난 27일 고용 농가와 결혼이민자, 관계 공무원 등 190여명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가졌다.

유기우 농업정책과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농촌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비싼 농사철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유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3년 제6회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이달 31일 해넘이 축제 안전 논의

부안군(부군수 이정석)이 지난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6회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부안군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기구로, 이 날 심의에선 이정석 부군수를 비롯해 경찰, 해경, 소방,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대한적십

자사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12월 31일 개최되는 제9회 해넘이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축제 인파 밀집을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특히 불꽃놀이와 달집태우기 등 화재안전과 겨울철 축제에 대비한 한파대책 등의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군은 겨울철 축제 안전 논

의 된 의견을 중심으로 행사 개최 전에 축제장 시설물과 전기, 가스 및 불꽃놀이 등을 비롯한 화재관리의 사전 현장점검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여, 현장의 안전 취약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정석 부군수는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부안의 해넘이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식

교통·경제·문화·교육의 중심 부안 랜드마크로 우뚝

부안군은 28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한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식전 행사로 부안군 출신 심성희 작가의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청룡의 힘찬 기운과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지인 매화 풍류마을의 상징인 매화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 활성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하는 드로잉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으며, 2층 전시관에서는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사업 관련 결과물과 졸포 예비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이음아동센터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인 '두리'의 재능기부를 통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 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용과 역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부안군은 28일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추진한 '부안군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식전 행사로 부안군 출신 심성희 작가의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이하여 청룡의 힘찬 기운과 또 다른 도시재생 사업지인 매화 풍류마을의 상징인 매화가 함께 어우러져 지역 활성화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하는 드로잉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으며, 2층 전시관에서는 매화풍류마을 도시재생 사업 관련 결과물과 졸포 예비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이음아동센터 아이들의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인 '두리'의 재능기부를 통한 체험프로그램이 마련 되어 다양한 볼거리와 앞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활용과 역할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군은 2019년 낚고 노후되어 관광 부안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부안터미널과 주변 상가를 철거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0년 토지 및 건물 보상 협의를 거쳐, 2021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22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사업' 선정

국·도비 4억5000만원 확보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4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에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주민 체감도가 높고 상용화가 쉬운 스마트기술을 적용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10곳 중에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가 선정됐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국·도비 4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시비 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6억5000만 원을 투입해 원도심 지역인 수성동, 연지동 일원의 시장, 상가, 주택 등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요 사업으로 화재 예방과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큰 장소(시장, 상가 등)에 불꽃과 연기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화재감지기' 200개를 구축한다.

스마트 화재감지기는 실시간 화재감지 센서를 설치해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연동하고, 화재 발생 시 119 상황실에 자동으로 신고해 신속한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인숙과 모텔, 좁은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 등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12상황실과 연결되는 안심 비상벨 39개를 설치한다. 아울러, 농촌과 도심 접점지역에 있는 노후 버스정류장을 뽕나무와 공기청정 시스템 기능을 갖춘 스마트 버스정류장으로 변모시켜 매연과 미세먼지, 소음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쇠퇴한 원도심 지역에 안전?소방?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을 도입하게 됐다"며 "현재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